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말괄량이 베키

(Bad Becky · 번역논문)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오 수 정

2012년 8월

말괄량이 베키

(Bad Becky · 번역논문)

지도교수 박 경 란

오 수 정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오수정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2012년 8월

Bad Becky

Soo-Jung Oh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Ran Par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2012.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말괄량이 베키

거바스 핀 지음

오수정 번역

말괄량이 소녀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

역자서문

이 책<말괄량이 베키>는 베키라는 말괄량이 여자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손님이 왔어요’, ‘생일파티’ 이렇게 세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베키는 어른에게 버릇없이 굴기도 하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면서 좌충우돌 말썹을 피우는 아이다. 친구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께 야단을 맞기도 한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항상 베키가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된다. 베키는 아주 짓궂은 장난꾸러기이지만,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이 말괄량이 소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의 내용 중 ‘손님이 왔어요’는 티타임 때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었고, ‘생일파티’는 영국 아이들의 생일파티에 관한 이야기이다. 원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국의 아이들 생일 파티문화와 티타임 문화를 소개하는 <영국문화 엿보기>를 부록으로 붙였다.

퍼핀북스

말괄량이 베키

거바스 핀은 교사, 프리랜서 강사, 작가, 시인, 교육자문위원, 장학관, 객원교수 이면서, 이 못지 않게 중요한 네 아이의 아빠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교사와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서 보낸다. 거바스 핀은 가족과 함께 영국 돈카스터에 살고 있다.

거바스 핀의 저서

말괄량이 베키(BAD BECKY)

선생님이 오늘 제 정신이 아니예요(THE DAY OUR TEACHER WENT BATTY)

도미니크의 발견(DOMINIC'S DISCOVERY)

유령가족(FAMILY PHANTOMS)

당신도 그런 사람이다(IT TAKES ONE TO KNOW ONE)

성인 독자를 위한 책

계곡에 빠지다(HEAD OVER HEELS IN THE DALES)

계곡 저편에(THE OTHER SIDE OF THE DALE)

험난한 계곡을 넘어(OVER HILL AND DALE)

굴곡이 있는 계곡(UP AND DOWN IN THE DALES)

거마스 핀 저

말괄량이 베키



린제이 가디너 그림

최고의 누이 크리스틴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퍼핀북스

PUFFIN BOOKS

Published by the Penguin Group

Penguin Books Ltd, 80 Strand, London WC2R 0RL, England
Penguin Group (USA), Inc., 375 Hudson Street, New York, New
York 10014, USA

Penguin Books Australia Ltd, 250 Camberwell Road,
Camberwell, Victoria 3124, Australia

Penguin Books Canada Ltd, 10 Alcorn Avenue, Toronto, Ontario,
Canada M4V 3B2

Penguin Books India (P) Ltd, 11 Community Centre, Panchsheel
Park, New Delhi – 110 017, India

Penguin Group (NZ), cnr Airborne and Rosedale Roads, Albany,
Auckland 1310, New Zealand

Penguin Books (South Africa) (Pty) Ltd, 24 Sturdee Avenue,
Rosebank 2196, South Africa

Penguin Books Ltd, Registered Offices: 80 Strand, London WC2R
0RL, England

www.penguin.com

초판 발행 2004년

목 차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손님이 왔어요

생일 파티

말괄량이 베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드리어 선생님이 커다란 컬러 그림책을 펴고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애들아, 오늘은 선생님이 아름다운 공주님이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줄 거예요.” 드리어 선생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 바보 같은 공주와 반짝이는 갑옷을 입고 앞뒤 가리지 않는 무모한 기사들이 나오는 그런 지루하고 흔해 빠진 이야기, 가엾은 용이 죽임을 당하고 그 후로 모두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결말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으면 하고 베키는 생각했습니다.

베키의 선생님은 왜 피를 빨아먹는 흡혈 괴물이나, 끔찍한 녹색 외계인, 머리 없는 유령이 나오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읽어줄 수 없는 걸까요? “우 췌!” 베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공주가 싫어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베키.” 드리어 선생님이 더 크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베키는 선생님을 놀리기 위해 최대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는 “아니오! 저는 그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공주님들이 좋아요.” 아라민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주님들은 착할 것 같아요.”

흠, 아라민타는 공주가 나오는 이야기를 당연히 좋아하겠지 라고 베키는 생각했습니다. 아라민타는 동화에 나오는 인물처럼 옷을 입고 학교에 옵니다. 금발의 긴 곱슬머리를 빨간 실크 리본으로 묶고, 진주 단추와 레이스 칼라가 달린 벨벳 원피스에, 프릴 장식이 달린 절대로 더럽혀지면 안 될 것 같은 흰 양말을 신고, 앞쪽에 분홍색 나비 리본이 달린 반짝이는 검정색 구두를 신고 다닙니다. 아라민타는 장난을

치는 법이 없습니다. 착하고 단정하고 항상 예의 바른 아이입니다. 이 점이 바로 아
라민타가 베키를 짜증나게 하는 이유입니다. 베키는 이와는 정 반대의 아이이기 때
문이지요.



베키는 베키네 집에서 막내입니다. 베키에게는 머나드 와 벤이라는 쌍둥이 오빠
가 있습니다. 베키는 오빠들과 병정놀이를 하거나, 나무에 올라가 놀거나, 담 위에서
균형 잡기 하면서 놀거나, 운하에서 낚시를 하거나, 물싸움을 하거나, 진흙 파이를
만들면서 놀거나, 축구공을 차면서 노는 것이 방에 앉아 무릎에 인형을 올려놓고 노
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나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인형을 갖고 있어.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백마 탄 왕자님도 받을 거야” 아라민타가 말했습니다.

“음, 난 왕자들이 싫어. 왕자들은 하나 같이 약해빠져서 계집애들 같아.” 베키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연히 모든 여자 애들은 자라서 아름다운 공주님처럼 되는 꿈을 꾸고 있을 거야.” 드리어 선생님이 여전히 미소 지으면서 둥그랗고 커다란 안경 너머로 내려다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도 그랬었거든.”

베키는 드리어 선생님이 학교 연못에 사는 이빨을 드러내 놓고 씩 웃는 노란 눈의 청개구리와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리어 선생님의 모습은 아름다운 공주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나는 커서 아름다운 공주님이 되고 싶어.” 아라민타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른이 되면 우주 비행사나 전투기 조종사, 깊은 바다에서 잠수하는 잠수부나 권투 선수 아니면 군인이 되고 싶어. 얌전빠는 구식 공주는 아니야.” 베키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될 거다, 레베카!” 드리어 선생님이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드리어 선생님은 베키가 알뜰게 굴면 항상 베키를 레베카라고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베키가 선생님에게 알뜰게 행동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잡담만 늘어놓다보면 아름다운 공주님이 나오는 오늘 이야기는 듣지 못할 거야.”

“신난다.” 베키가 말했습니다. “그 대신 우주에서 온 외계인 킬러가 나오는 이야기 들려주시면 안돼요?”

“한 마디라도 더 하면, 레베카, 너는 복도에서 너 혼자만 서 있어야 할 거다.” 드리어 선생님은 베키에게 최대한 무섭게 방울뱀 같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드리어 선생님은 책의 첫 장을 넘기고, 가볍게 기침을 하고는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공주는 긴 금발 머리에 파란 눈동자의 커다란 눈, 부드러운 피부를 가지고 있었지요. 공주의 입술은 아주 붉어서 마치.....”



“피 같았어요.” 베키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피가 아니야.” 드리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공주의 입술은 반짝이는 앵두같이 붉었어요.”

“나는 앵두가 싫어요.” 베키가 말했습니다. “앵두에는 씨가 들어있어요. 제가 한번은 씨가 목에 걸려 숨 막혀 죽을 뻔 했어요.”

“저는 앵두가 좋아요.” 아라민타가 말했습니다. “맛있는 것 같아요.”

드리어 선생님이 잠시 동안 베키를 노려보다가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의 이름은.....”

“도리스” 베키가 말했습니다.

“아니, 도리스가 아니야.”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왜 도리스라고 하면 안 되죠?” 베키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공주의 이름이 도리스가 아니기 때문이지, 그게 이유야.”
드리어 선생님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도리스라고 했어.” 베키가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흠, 이 공주의 이름은 도리스가 아니야.”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공주는 카리스마 공주였어요. 그리고 공주가 사는 곳은.....”

“유령과 해골, 시체가 가득한 어둡고, 퀴퀴하고,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미줄투성이의 오래된 성이야.” 나머지 다른 아이들을 향해 악마처럼 씩 웃어 보이면서 베키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드리어 선생님이 화를 꼭 참으며 말했습니다. “공주는 깎아지른 듯한 성벽이 있는 높은 잿빛 성에 살고 있었는데, 그 성은 마법에 걸린 숲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선생님은 더욱 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카리스마 공주가 높은 성벽의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공주가 떨어졌어요!” 베키가 외쳤습니다.

“아니야, 공주는 떨어지지 않았어!” 드리어 선생님이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레베카, 방해 그만하고 잠자코 듣지 않으면, 네가 나와 함께 밖으로 떨어지게 될 거다.”

“저, 이 이야기는 지루해요.” 베키가 말했습니다. “피를 빨아먹는 흡혈 괴물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안돼요?”

“안 돼!” 선생님이 쏘아붙였습니다.

“나는 괴물 싫어.” 아라민타가 말했습니다. “괴물은 무서울 것 같아.”

“그건 네가 바보같이 너무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베키가 비웃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야기를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갑자기, 아름다운 카리스마 공주는 저 멀리서 자욱한 흙먼지를 발견했어요.”

“그건 험악한 용이에요” 베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날카로운 이빨, 피로 물들인 것 같은 빨간 눈, 기다란 발톱을 가지고 있고 입에서는 불을 뿜어내요. 험악한 용은 카리스마 공주를 잡아먹으려고 온 거예요.”



“그것은 용이 아니야.” 드리어 선생님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멋있는 왕자님이었어요.”

“저는 멋있는 왕자 따위는 싫어요.” 또 심술궂은 표정으로 베키가 불평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커서 멋있는 왕자님이 되고 싶어요.” 사이먼이 말했습니다.

“저는 멋있는 왕자님과 결혼하고 싶어요.” 아라민타가 아주 감상적인 목소리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흠, 나는 극악무도한 해적 제이크와 결혼하고 싶어.” 베키가 말했습니다. “수염

이 덩수룩하게 나 있고 한 쪽 눈엔 커다란 검은 안대를 하고 있지. 그리고 커다랗고 근사한 은빛 갈고리에 번쩍이는 단검을 차고 있어. 커다란 권총이 두 개나 있고 말버릇이 나쁜 껍뻍거리는 앵무새도 가지고 있어.”

“레베카, 잠자코 듣지 않으면 너 혼자 복도에 서 있게 할 거야.” 드리어 선생님은 그만 인내심을 잃고 쏘아붙이며 대꾸했습니다. “자 이제, ‘길을 따라 백마를 탄 멋있는 왕자가 오고 있었어요. 따가닥따가닥, 따가닥따가닥, 왕자는 작은 나무다리를 건너왔어요. 그 때.....”

“왕자가 다리에서 떨어져 강에 빠져버렸어요!” 베키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강 아래로 떠내려갔어요. 그 곳에는 물속에 거대한 입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악어 떼들이 살고 있었는데, 입을 짹짹, 짹짹, 우적우적, 우적우적 거리면서 달려들어 왕자를 게걸스럽게 먹어버렸어요.”

드리어 선생님의 얼굴에는 이미 오래 전에 미소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드리어 선생님의 표정이 스카울러 아저씨의 개가 으르렁거리며 입을 무섭게 벌릴 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카울러 아저씨는 절대로 웃는 법이 없고, 항상 베키에게 자기가 본 아이들 중에 가장 말을 듣지 않고 골치 아픈 아이라고 말하는 학교 수위아저씨입니다. 베키도 역시 스카울러 아저씨를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서 복도에 서 있어, 레베카.” 드리어 선생님이 명령했습니다. “선생님 험망하는 거 그만하라고 경고했지. 똑바로 행동하고 수업시간에 소리 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할 때까지 복도에 서 있어.”

베키는 복도에 서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지루한 카리스마 공주와 겁쟁이 왕자가 나오는 시시한 이야기를 듣는 것 보다 훨씬 더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베키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동화 속 이야기의 결말은 항상 왕자가 공주를 구하고, 둘이서 작은 나무다리를 건너 마법에 걸린 숲을 빠져나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너무 감상적이야! 너무 감상적이야! 너무 감

상적이야! 베키는 생각했습니다.

복도에 놓인 ‘자연탐구’ 탁자 위에 커다란 유리 수조가 있었습니다. 수조 앞면에는 ‘곤충’ 이라고 쓰인 라벨이 붙어있었습니다. 애벌레와 구더기, 거미, 개미, 집게벌레, 다리가 긴 꾸정모기, 딱정벌레, 그리고 그 외에도 꿈틀거리며 기어가는 멋진 벌레들로 가득했습니다. 베키는 벌레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집의 정원이나 집 안 어두운 구석에서 벌레들을 찾으며 놀기도 합니다.

베키는 벌레들을 성냥갑이나 잼 병에 담아 모아두지만, 가끔 오빠들이 자기를 괴

롭힐 때는 오빠들 침대에 풀어놓기도 합니다. 베개 위를 재빠르게 움직여 다니는 털이 많이 난 긴 다리의 살찐 검정색 거미들을 발견하거나, 침대시트 위에서 꿈틀거리거나 길쭉한 갈색 집게벌레들을 발견하면, 오빠들이 얼마나 비명을 질러대는 지 모릅니다. 그럴 때면 오빠들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리 수조 앞에 ‘만지지 마시오’ 라고 검정색의 굵은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흥!” 수조의 뚜껑을 들어 올리며 베키가 말했습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

베키는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수조 안에 있던 벌레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두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벌레들은 꿈틀거리고 또 꿈틀거렸습니다. 꿈지락대다 재빠르게 도망쳤습니다. 스프르 미끄러지며 기어 다녔습니다.

커다란 바퀴벌레를 한 손에 부드럽게 잡고 베키는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퀴벌레가 간지럼을 태웠습니다. 그 때 베키는 틀림없는 성질 고약한 그라우처 교장 선생님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베키는 벌레들을 재빨리 호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마지막 집게벌레를 막 집어 올리는 순간 그라우처 교장 선생님이 모퉁이를 돌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교실 밖에서 뭐하고 있는 거냐, 레베카?” 교장 선생님은 동그랗고 붉은 얼굴에 무뚝뚝한 표정을 하고 베키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며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목소리가 뱃고동 소리처럼 크고 몸집은 하마처럼 거대합니다.

“음, 레베카?” 그라우처 교장 선생님이 통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복도에 서있는 거냐?”

“쫓겨났어요, 교장 선생님.” 베키는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쫓겨났다고!” 교장 선생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네가 또 다시 말썽을 부린 것도

아닌데 말이냐?”



“아, 아니요, 교장 선생님” 베키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가장 순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드리어 선생님이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과 우주에서 온 외계인 킬러들이 나오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읽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다 읽을 때까지 복도에 있어도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베키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공주님과 멋진 왕자님이 나오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음음” 교장 선생님이 입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괴물이라고? 우주에서 온 외계인?” 교장 선생님은 창문으로 교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지금은 끝난 것 같구나. 교실로 돌아가도록 해라.”

“네, 교장 선생님.” 베키는 아주 순진한 척 내숭을 떨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내가 복도에서 기다리라고 말했을 텐데, 레베카.” 베키가 교실 문 앞에 나타나자 드리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교실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키는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조용히 있어라.” 드리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카리스마 공주와 멋진 왕자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중이었어.”

“저는 괴물 이야기를 써도 될까요?” 베키가 물었습니다.

“안 돼!” 선생님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우주에서 온 외계인 이야기는요?”

“당연히 안 돼지!”

“하지만 저는 카리스마 공주와 멋진 왕자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걸요.” 베키가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럼, 적당히 만들어 내.” 드리어 선생님이 베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거의 다 끝나가.” 아라민타가 우쭐대며 말했습니다.

“계집애 같이 장정대는 이야기일게 분명해.” 베키가 작은 목소리로 숨죽여 말했습니다.

“나는 카리스마 공주가 왕자와 결혼하는 장면까지 갔어.” 사이먼이 말했습니다.



“흥, 그렇다면 거기에 반전이 또 있어야지.” 베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키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베키의 이야기는 날카로운 이빨과 긴 발톱을 가지고 있고 몸은 더럽고 끈적끈적한 녹색 괴물이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아름다운 카리스

마 공주를 한 입에 삼켜버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괴물은 작은 나무다리를 건너 왕자의 뒤를 쫓아가서 왕자를 게걸스럽게 집어삼켜버렸습니다.

베키는 글을 쓰는데 정신이 팔려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던 애벌레와 구더기, 거미, 개미, 집게벌레, 다리가 긴 꾸정모기, 딱정벌레, 그 외에 황홀한 벌레들이 주머니 밖으로 도망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벌레들은 책상 위에서 꿈틀거리고 또 꿈틀거렸습니다. 꿈지락대다 재빠르게 도망쳤습니다. 스프르 미끄러지듯 기어 다녔습니다.





손님이 왔어요



“오늘은 최대한 얌전하게 있어야 한다, 베키야.” 엄마가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밀드레드 고모할머니가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베키는 지난 번 밀드레드 고모할머니가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티타임 때 베키는 밀드레드 고모할머니의 접시에 있는 상추 밑에 플라스틱 거미를 숨겨 놓았습니다. 베키는 단순히 장난으로 했는데, 고모할머니가 그 거미를 순식간에 입에 집어넣고 감자 칩처럼 바삭바삭 씹어 먹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고모할머니는 그것을 뱉어 보고 무엇인지 알고서는 있는 힘을 다해 짹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그만 거미일 뿐 이었는데 말입니다.



그것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미 말이죠. 자기 방으로 가 있으라는 말을 들으면서 베키는 ‘이 세상에는 정말 유머감이 없는 사람들도 있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밀드레드 고모할머니는 아주 지독한 분입니다. 고모할머니는 베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항상 주의를 줍니다. “똑바로 앉아라!” “자세를 구부정하게 굽히지 마라!” “코 닦아라!” “식탁에 팔꿈치를 올리지 마라!” “입에 음식을 물고 얘기하지 마라!” “휴지를 사용해라.” “다리를 꼬고 앉지 마라!” “공손히 말해라!”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 또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 후, 밀드레드 고모할머니는 베키만 한 나이였을 때 자신이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학교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얼마나 우수했고, 운동이나 음악, 미술 분야에서도 얼마나 뛰어났는지 등, 그 외에도 말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늘어놓습니다. 흥, 고모할머니는 분명히 선생님의 애완견이었을 것이고, 결단코 절대로 고모할머니처럼 되고 싶지는 않다고 베키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런 밀드레드 고모할머니가 또 오십니다. 그래서 베키는 최대한 안전하게 있어야 합니다. 베키는 꺼버릴 수도 없는 지루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처럼 밀드레드 고모할머니 앞에 앉아서 할머니가 횡설수설하는 것을 들어야 하고 마치 굶주린 공룡처럼 앞에 놓인 음식들을 우적우적 씹으며 다 먹어치우는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요일 오후를 보내야 하는 것보다 더 지루한 일은 생각해 낼 수조차 없습니다. 베키는 햇빛에 나가서 오빠들을 쫓아다니거나, 나무에 올라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베키야 하얀 레이스 칼라가 달린 새 원피스에 반짝이는 검정색 구두 신을 거니?” 엄마가 물었습니다. “거기다 머리에 핑크색 리본까지 하면 정말 사랑스러워 보일거야.”

절대 안 돼, 베키는 생각했습니다. 베키가 이 세상에서 가장 닳기 싫은 사람이 바로 아라민타입니다. “저는 제 티셔츠와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을 거예요.” 베키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베키는 집에 있을 때 다른 옷은 좀처럼 입지 않습니다. 베키는 원피스나 리본, 흰 양말, 반짝이는 검정색 파티용 구두 같은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핑크색은 베키가 가장 싫어하는 색입니다. 베키는 네이비색이나 덜 여성스러운 색깔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엄마를 화나게 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베키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여운 척이라도 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빨간 곱슬머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돌돌 말면서, 주근깨 많은 얼굴에 살짝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커다란 녹색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오빠들은 새 정장을 입으니까 정말 멋있지 않니.” 아빠가 읽고 있던 신문을 접어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너도 새 원피스 입고 멋있게 보이고 싶은 생각은 없니?”

“아니오.” बे키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티셔츠와 청바지가 좋아요.”

“정말 예쁘게 보일 텐데.” 아빠가 구슬려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예쁘게 보이고 싶지 않아요.” 베키는 버릇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좋아, 네 마음대로 해라”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딩-동! 덩-동! 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밀드레드 고모할머니실거야.” 엄마가 말했습니다. 베키는 엄마가 할머니를 썩 달가워하시진 않는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베키, 엄마가 한 말 명심해야 한다.”

착한 척 하던 것을 그만두고, “으으윽” 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아빠, 엄마, 오빠들은 현관 입구에서, 현관문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고모할머니를 맞이하였습니다. 베키는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맨 뒤에서 있었습니다.



밀드레드 고모할머니는 아주 뚱뚱합니다. 할머니는 텐트를 쳐 놓은 것 같은 보기

홍한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온통 꽃으로 장식된 챙이 넓고 축 늘어진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 쪽 팔에는 아주 큰 가방을 들고, 다른 한 쪽 팔에는 강아지 한 마리를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습니다. 베키는 그렇게 못생긴 강아지는 처음 봤습니다. 그 강아지는 마치 문에 부딪혀서 얼굴이 찌그러져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은 부리 부리하게 노려보는 듯 하고, 뚱뚱하고 둥그런 몸에, 꼬리는 굵고 짧아 뭉툭했습니다. 게다가 쉬지 않고 으르렁대는 소리는 멀리서 덜거덩, 덜거덩 거리는 기차소리 같았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애들아, 안녕!” 밀드레드 고모할머니가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사해야지, 푸치”



강아지는 좀 더 크게 으르렁대면서 날카롭고 뾰족한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밀드레드 고모님,” 아빠가 즐겁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밀드레드 고모님.” 엄마도 따라 인사했지만 그렇게 반기는 투는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밀드레드 고모할머니” 오빠들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오는 내내 엄청 힘들었다.” 숨을 헐떡거리며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가면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군, 베키는 생각했습니다. 문에 들어서기도 전부터 고모할머니는 여느 때와 같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교통체증이 너무 심각해.” 밀드레드 고모할머니가 의자에 앉으려고 몸을 구부리면서 말했습니다. “미친 듯이 운전하는 사람들하며, 자전거 타는 아이들, 매연을 마구 뿜어내는 트럭들, 버스들은 아주 기어 다니더구나. 내 가엾은 푸치가 너무 덥고 갈증 나서 힘들었지, 푸치?”

강아지는 더 크게 으르렁댔고 밀드레드 고모할머니는 강아지를 아빠의 손에 밀어 넣었습니다. “푸치에게 물 한 그릇 갖다 줘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물은 꼭 차갑게 해서 줘야한다.”

“네, 고모님.” 아빠는 강아지를 부엌으로 들고 가면서 별로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밀드레드 고모할머니가 쌍둥이들을 대견스럽게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많이 컸구나. 이리로 와서 고모할머니에게 뽀뽀 해주렴.”

“웁!” 베키가 몸서리쳤습니다. 침으로 범벅이 되어 축축해진 입술로 뽀뽀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베키는 금방 토할 것 같았습니다.

“쪽, 쪽, 쪽” 밀드레드 고모할머니는 쌍둥이들에게 뽀뽀를 해댔고, 쌍둥이들의 뺨은 온통 새빨간 립스틱 자국으로 뒤덮였습니다.



베키 눈에는 벤과 버나드 오빠가 마치 거대한 핑크색 해파리에게 잡아먹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베키는 고모할머니가 자기 얼굴에도 침을 묻히면서 마구 뽀뽀를 해대게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녕, 레베카.” 밀드레드 고모할머니는 벌레 씹은 것처럼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걸 배웠겠지.”

“네, 밀드레드 고모할머니.” 베키가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리 와서 밀드레드 고모할머니에게 크게 뽀뽀해주렴.”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제가 수두에 걸렸다가 나온지 얼마 안 됐어요. 얼굴이 온통 산만 한 붉은 반점들로 뒤덮여 있었어요. 하루 종일 긁고 또 긁었어요.”

엄마가 베키를 노려보았습니다. 베키는 결코 수두에 걸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 내 새끼.” 밀드레드 고모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한테 가까이 오지 말아야 될 것 같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밀드레드 고모할머니. 고모할머니를 수두에 걸리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베키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아가, 도대체 무슨 옷을 입은 거냐?” 밀드레드 고모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제 청바지와 티셔츠요.” 베키가 명랑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청바지와 티셔츠가 아니라 근사하고 화려한 색상의 원피스에, 머리에 리본을 하고, 앙증맞은 구두를 신는 거란다.” 밀드레드 고모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린 소녀였을 때 사람들이 내가 파티용 원피스를 입은 모습을 보고 하나같이 얼마나 예쁘다고 칭찬들을 했다고. 나는 학교에서 가장 예쁜 아이였단다.”

그 때 부엌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우우우에에에아아아 악악악” 이런 비슷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아빠가 문으로 급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물렸어요!” 아빠가 새빨개진 손가락을 공중에서 흔들면서 몹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물렸어요! 저 개가 나를 물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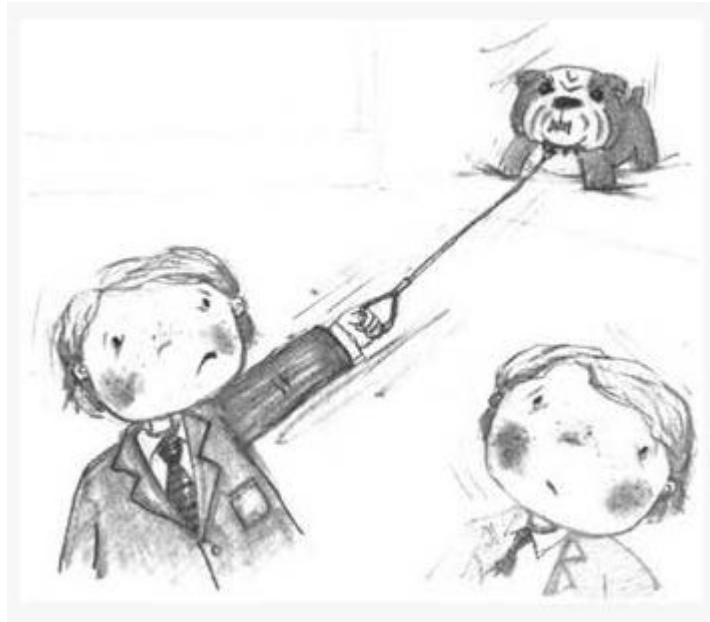
“네가 푸치에게 무섭게 했구나.” 아빠가 아파하는 것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밀드레드 고모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엾은 푸치는 어디 있니?” 푸치는 고모할머니를 향해 종종걸음으로 달려와 고모할머니의 무릎위로 꺽충 뛰어올랐습니다. “저 덩치 큰 아저씨가 너를 놀라게 했어, 푸치?” 고모할머니는 बे키도 민망해 할 만큼 유치한 목소리로 푸치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언짢은 얼굴로 노려보다가 반창고를 찾으러 갔습니다.

“애들아 푸치 데리고 정원에 가서 놀지 않을래?” 밀드레드 고모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푸치는 아침 내내 덮고 숨 막히는 차 안에 있었단다.” 고모할머니는 토실토실 살이 찢 푸치의 턱 밑을 간질였습니다.

“푸치, 우리 예쁜이 푸치우치 산책가고 싶었어요?” 고모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버나드와 벤은 마지못해 그 뚱뚱하고 사나운 녀석을 아주 조심스럽게 개 줄에 묶고 뒷정원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푸치는 오빠들에게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작고 뚱뚱한 꼬리를 꼳꼳이 세워 서 으르렁댔습니다. 베키는 오빠들이 그 포악한 짐승을 산책시킬 마음이 전혀 없지만, 오빠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밀드레드 고모님, 차 한 잔과 제가 고모님을 위해 특별히 구운 초콜릿케이크 한 조각 드시겠어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밀드레드 고모할머니가 ‘고맙다’는 말은 안하고 ‘그러지’라고만 말했다는 것을 베키는 알아챘습니다. “나는 초콜릿 케이크를 아주 좋아해. 나는 초콜릿 케이크를 아주 맛있게 잘 만든단다. 다들 깃털만큼이나 부드럽고 폭신하다고 말하지.”

그 때 정원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우우우에에에아아아악악악” 이런 비슷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버나드와 벤이 푸치에게 발뒤꿈치를 물린 채 문으로 급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저리가!” 탁자 뒤로 몸을 숨기면서 벤이 외쳤습니다.

“저리가!” 의자 위로 올라서며 버나드도 따라 외쳤습니다.

“저 개가 제 새 코트를 물어뜯었어요!” 벤이 울부짖었습니다.

“제 바지도 찢었어요!” 버나드도 불평했습니다.

“푸치가 배가 고팠구나.” 밀드레드 고모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예쁜이 푸치우치가 맘마 먹고 싶었어요?” 고모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고모할머니는 커다란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더니 커다란 개 비스킷 한 봉지와 큼지막한 통조림 한 캔을 꺼냈습니다. 고모할머니는 비스킷과 통조림을 베키에게 들이밀었습니다. “푸치에게 저녁 먹여라,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고모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밥을 줘야 되나요?” 베키가 물었습니다. 베키는 얼굴을 찌푸리며 마지못해 개 먹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래, 꼭 해야 해.” 밀드레드 고모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착한 여자 애들은 시

키는 대로 하고, 조용히 암전히 있어야 해!’ “

베키는 푸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식인상어가 노려보듯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푸치도 베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리와.” 베키가 말했습니다.

푸치는 고분고분 종종걸음으로 베키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베키가 비스킷을 그릇에 부으려고 봉지를 흔들자, 그 순간 푸치가 날카로운 이빨을 번뜩이면서 베키를 향해 으르렁대며 다가왔습니다.



베키는 하던 동작을 멈추고, 양손을 엉덩이에 얹고 푸치의 눈을 노려보았습니다.

정말로 아주 화가 많이 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의 표현을 빌리자면 멀쩡한 우유를 상하게 하고, 냄비 안에 있는 수프를 얼어붙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키는 손가락으로 허공을 찔렀습니다. “조용히 해! 이 멍청한 개야!” 베키가 소리쳤습니다. “한 번 더 네 입 밖으로 으르렁대는 소리가 나오면 어두컴컴하고 무시무시한 상점 진열대에 가둬 버릴 거야.”

푸치가 잠시 동안 베키를 응시하더니, 푸치의 목에서 으르렁 대던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킁킁거리면서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고 총총거리며 허둥지둥 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제 앉아. 그리고 얇전하게 굴어!” 베키가 명령했습니다.

푸치는 명령대로 했습니다. 이제 보니 푸치가 적수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베키가 거실로 다시 들어갔을 때 밀드레드 고모할머니는 큰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을 게걸스럽게 씹어 삼키고 있었습니다. 베키는 할머니가 모든 걸 우적우적 씹어 삼켜버리는 괴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적우적, 우적우적, 찹찹.

“내가 만든 것만큼 맛있지는 않구나.” 밀드레드 고모할머니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은 훨씬 폭신평신했으면서 부드럽고 초콜릿이 더 많이 들어있지. 난 초콜릿 케이크로 상을 받은 적도 있어.”



베키가 콧방귀를 끼었습니다. 흥, 그랬겠지 라고 베키가 생각했습니다.

“코 풀어라, 베키.” 밀드레드 고모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숙녀는 그렇게 재미핥기 (anteater)처럼 코를 킁킁대면서 코맹맹이 소리하는 거 아니다.”

베키는 ‘고모핥기(Aunt Eater)’ 같은 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부드득 갈고, 거대하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으며, 육중한 덩치로 느릿느릿 움직이면서, 눈은 빨갛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끔찍한 고모들을 찾아내서 잡아먹어버리는 괴물. 밀드레드 고모할머니는 또 한 번 초콜릿 케이크를 한 입 가득 먹었습니다.

베키는 손수건을 찾으려고 칭바지 호주머니 속에 손을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때 그것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더기였습니다! 베키는 구더기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전 날 오빠들과 낚시하러 갔을 때 호주머니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는 게 뭐냐?” 초콜릿 케이크를 입에 넣고 씹씹거리면서 밀드레드 고모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밀드레드 고모할머니” 베키가 대답했습니다.

“뭔가 있는데. 너 뭔가 만지작거리고 있잖니.”

“아네요,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아요.” 베키가 말했습니다. 이번만은 고모할머니가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너 만지작거리고 있어.” 밀드레드 고모할머니는 말을 할 때마다 초콜릿 케이크를 입 밖으로 튀기면서 계속 우겼습니다.

베키는 음식을 입에 물고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저 “정말 아무것도 아네요” 라고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보자꾸나, 아가야” 손을 내밀며 밀드레드 고모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베키가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밀드레드 고모할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

“네 알겠습니다.” 베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키는 꿈틀거리는 구더기들을 한 손 가득 꺼내서 밀드레드 고모할머니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아아아호호호호호호우우우우우우욱욱욱!” 밀드레드 고모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모할머니의 손이 위로 추켜올려지면서 구더기들이 모두 공중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베키는 그 구더기들 중 한두 마리가 고모할머니의 치마에 제대로 멋지게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밀드레드 고모할머니는 초콜릿 케이크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벌떡 일어나 쿵쿵거리며 도망치는 코끼리처럼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뒤를 푸치가 깨갱거리며 쫓아갔습니다.

고모할머니가 나가고 문이 쾅 닫히자, 엄마, 아빠, 오빠들, 그리고 베키까지 터벅 터벅 부엌으로 걸어 들어왔고 다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두들 헝클어져 엉망이 된 모습으로 차 한 잔의 여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고모님은 제 초콜릿 케이크가 별로 맛이 없다고 하셨어요.” 차를 따르면서 엄마가 시무룩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손가락이야” 아빠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고약한 개 같으니라고!”

“제 새 재킷도 버렸어요!” 벤이 투덜댔습니다.

“제 새 바지도 마찬가지로요!” 버나드도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베키는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언제 자기에겐 야단치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분간은 밀드레드 고모할머니를 못 보게 될 것 같구나.” 라고 말하면서 엄마의 입 꼬리가 씩룩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베키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전혀 화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웃고 싶은 것을 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소.” 아빠가 얼굴에 활짝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베키는 엄마와 아빠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빠들도 쳐다보았습니다. 오빠들은 아주

신이 나서 히죽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들 모두 베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때 아빠가 식탁 반대편에 있던 접시를 베키에게 밀었습니다. 접시 위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이 놓여있었습니다.



베키의 입에서 군침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속으로 채워져 있고, 겉은 두껍게 초콜릿이 입혀져 있어 그야말로 군침 돌게 하는 커다란 삼각형 모양의 초콜릿 스펀지케이크였습니다. 베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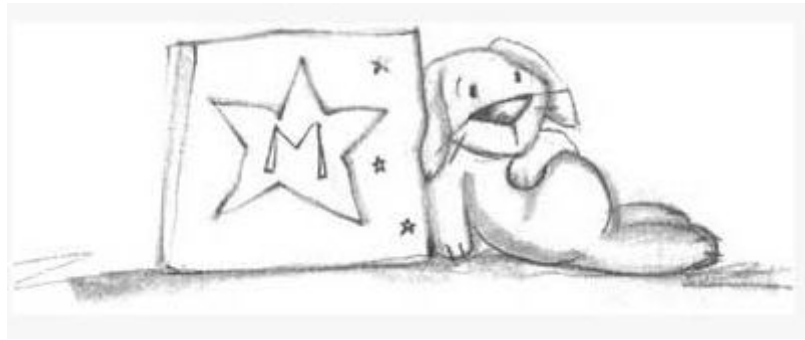
“내 생각에 베키는 이 케이크를 먹을 자격이 충분한 것 같은데.” 아빠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의 말에 찬성했습니다.

베키는 초콜릿 케이크를 한 입 크게 베어 물면서, 밀드레드 고모할머니가 놀러오

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생일 파티



'사이먼의 생일파티에 가고 싶지 않아요!' 베키가 발을 쿵쿵거리면서 아랫입술을 삐죽 내밀고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떼를 쓰는 것이 유치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 억지를 쓸 때 베키에게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엄마는 실랑이를 하고 싶지 않으면 보통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저으면서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하고는 마지못해 들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이 날 아침은 이 작전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베키가 말을 듣지 않

는 것을 그냥 보아 넘겨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생일파티에 가야 돼.” 엄마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네가 초대장을 받은 것은 운이 좋은 거야. 더 이상 실랑이 하지 말자. 안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네 방에 있어야 할 거다.”



“하지만-” 베키는 한 번 더 떼를 써볼까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떼쓰지 마.” 엄마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우와, 오늘 아침은 엄마의 목소리가 마치 그라우처 교장선생님 같다고 베키는 생각했습니다.

베키는 최대한 뚱하니 부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나마나 계집애 같은 파

티일거예요 확실해요” 베키가 말했습니다. “남자 애들은 모두 축구공 차면서 놀거나, 나무에 올라가 놀면서 나를 끼워주려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 애들은 모두 인형을 가지고 놀거나, 몸치장을 하면서 놀 텐데, 저는 절대로 그런 거 하면서 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 지독히 맛있는 라즈베리 젤리와 아이스크림, 맛이 형편없는 빵, 역겨운 초콜릿 케이크까지 있을 텐데.” 아빠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집에 올 때는 파티백¹⁾에 선물도 주잖아.” 벤이 말했습니다. “넌 그런 거 원하지 않지.”

“게다가 마술사도 온대.” 버나드가 말했습니다. “그 마술사 진짜 재미없을 거야.”

이런저런 이유로, 식구들은 저마다 토요일 오후에 베키를 집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엄마는 시내에 가서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치가 빠른 딸아이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빠는 조용히 텔레비전으로 축구를 보고 싶었습니다. 오빠들은 친구 두 명이 집으로 놀러오기로 했기 때문에, 여동생이 자신들의 시간을 망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모두들 기대에 찬 눈빛으로 베키를 바라보았습니다.

음음, 베키는 생각했습니다. 그 맛있는 음식들, 집에 올 때는 맛있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파티백, 게다가 마술사까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베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쌓여있는 식탁을 상상했습니다. 길고 하얀 턱수염에, 머리는 길게 늘어뜨리고, 손가락은 마치 작은 나무 막대기 같은 키가 큰 마법사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마법사는 끝이 뾰족한 모자를 쓰고, 별과 달무늬가 있는 번쩍이는 망토를 입고, 손에는 황금 지팡이를 들고 온갖 종류의

1) 파티백(Party Bag): 영국에서 아이들 생일파티 때, 파티에 참석한 아이들에게 작은 인형과 과자를 넣어 나누어주는 것.

마법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가겠어요.” 베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보 같은 원피스는 입지 않을 거예요.”

베키가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모두 선물을 주기 위해 사이먼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이먼은 키가 크고, 얼굴은 창백하고, 볼품없이 쪽 뺀 긴 머리에 슬퍼 보이는 눈을 가진 아이입니다. 사이먼은 커다랗고 둥그란 안경을 끼는데, 그날 오후에는 빨간색 조끼를 입고 그에 어울리는 나비넥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 주려고 색칠공부 책을 가져왔어.” 새가 지저귀듯이 아라민타가 사이먼에게 말했습니다. 아라민타는 녹색의 어깨장식 띠가 달린 밝은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있

있고, 곱슬머리를 길게 흘러내리듯 늘어뜨렸습니다. “이 책은 색을 칠할 수 있는 예쁜 동물 그림들이 많이 들어 있어.”

“고마워.” 책 표지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면서 사이먼이 말했습니다. “이 책 정말 좋은데.”

“나는 선물로 읽을 책을 가져왔어.” 개리스가 말했습니다. 개리스는 깨끗한 새하얀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광택이 나는 구두를 신었습니다. “제목은 「어린이들을 위한 감동적인 이야기」 이고 팔 십 쪽짜리야.”

“고마워.” 사이먼이 받은 책을 색칠공부 책 옆에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책은 내가 갖고 싶었던 책이야.”

“나는 아름다운 정원 그림이 있는 퍼즐을 가져왔어.” 은색 종지로 포장된 선물을 사이먼의 손에 쥐어 주면서 제이드가 말했습니다. 제이드도 역시 가장 예쁜 파티 원피스를 차려입었습니다. “오백 구십 구 개짜리 퍼즐 조각이야.”

“아주 마음에 들어!” 사이먼이 말했습니다.

“음, 나는 은하계 우주공격용 물총을 가져왔어.” 베키가 말했습니다.

그 때까지 아이들이 가져온 선물들을 보면서 즐겁게 호응해주던 사이먼의 엄마가 갑자기 놀라서 숨을 몰아쉬더니 베키의 손에서 선물을 낚아챘습니다. “총은 허락할 수 없어.” 사이먼의 엄마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선물을 다시 빼앗으며 베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갖도록 할게요.”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선물받기 게임, 의자 빼앗기 게임 같은 베키가 생각하기에

는 계집애들이나 할 것 같은 그런 게임들을 하고 있을 때, 베키는 커다란 녹색 은하계 우주공격용 물총에 물을 채웠습니다.



베키가 창문에 물총을 쏘았습니다. 의자에도 물총을 쏘았습니다. 천장에도 물총을 쏘았습니다. 바닥에도 물총을 쏘았습니다. 베키가 사이먼에게도 물총을 쏘아서 사이먼이 울음을 터뜨리자, 사이먼의 엄마는 한 번 더 물총을 쏘면 베키를 집으로 데려가 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술사는 언제 오나요?” 베키가 커다란 녹색 은하계 우주 공격용 물총을 바지 뒷주머니에 집어넣으면서 물었습니다.

“간식 먹고 난 후에” 사이먼의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주 얌전히 있어야 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마술사가 너를 개구리로 만들어 버릴 거야.”

베키는 가끔은 어른들이 가장 바보 같은 말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베키는 간식 시간에 감자 칩 세 봉지, 샌드위치 여섯 조각, 빵 다섯 개, 아이스크림 과 젤리 네 그릇, 초콜릿 케이크 두 조각을 먹었습니다. 베키는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고 해서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 때 마술사가 도착했습니다. 마술사는 베키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길고 하얀 턱수염에,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 손가락은 마치 작은 나뭇가지 같고, 끝이 뾰족한 모자를 쓰고, 별과 달무늬가 있는 번쩍이는 망토를 입고, 황금 지팡이를 들고 있는 키가 큰 마법사 대신에, 이 마술사는 반질반질한 대머리에 빨갛고 아주 큰 코를 가진 키가 작고 뚱뚱한 남자였습니다. 마술사는 빨간색에 노란색 체크무늬가 있는 부대자루 같은 양복을 입고 큰 물방울무늬 나비넥타이를 맸습니다. 앞면에 은색 글씨로 ‘마술사 마르보’라고 쓰인 커다란 자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 애들아!” 바람에 하늘거리는 수선화처럼 공중에서 손을 흔들어 보이며, 마술사가 기분 좋게 외쳤습니다.

“내가 바로 그 대단한 ‘마술사 마르보’야.”

“아저씨는 마술사처럼 보이지 않아요.” 베키가 말했습니다. “어릿광대처럼 보여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마르보 아저씨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베키도 되받아 쏘아붙였습니다.

마르보 아저씨는 베키를 무시해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애들아, 모두들 여기 아저씨 앞의 카펫에 모여라.”

베키는 맨 앞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술사는 베키를 수상쩍다는 듯이 쳐다보다가 자신이 가져온 커다란 자루를 뒤적였습니다. 마술사가 은색 지팡이를 꺼냈습니다. “아저씨는 마술을 부릴 수 있단다. 이 은색 막대기로 말이야.”

“제 생각에는 마술사들은 그런 걸 지팡이라고 부르는 거 같던데요.” 베키가 말했습니다.

“음, 나는 막대기라고 부른다.” 마르보 아저씨가 눈을 부릅뜨고 베키를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착하고, 말 잘 듣고, 예의바른 어린이 중에 이리로 와서 마르보 마술사 아저씨가 마술 부리는 거 도와줄 사람 있니?”

다른 아이들은 눈도 깜짝하기 전에 베키가 아저씨 쪽에 가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베키가 말했습니다.

마르보 아저씨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다른 친구는 없니?” 방 안을 둘러보면서 마르보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베키가 도끼눈을 하고 눈이 휘둥그레진 채 마술사 앞에 앉아 있는 다른 아이들을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좋다. 하지만 기억해라. 마르보 아저씨는 착한 어린이만 좋아한다.” 마르보 아저씨가 베키에게 말했습니다. “

“아저씨 지팡이 좀 봐도 돼요?” 마르보 아저씨의 말을 무시하고 은색 막대기를 집어 들면서 베키가 말했습니다.

마르보 아저씨가 막대기를 잡아챘습니다. “내려와!” 아저씨가 쏘아붙였습니다.

“사람을 개구리로 만들 수 있어요?” 베키가 물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마. 당연히 안 되지.” 마르보 아저씨가 허둥지둥 흥분한 모습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이먼의 엄마가 그러는데요 제가 아주 많이 말을 안 들으면 아저씨가 저를 개구리로 만들어 버린대요.”

“나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마술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개구리가 되는 건 아주 신나는 일 일거예요.” 베키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진짜 마술사는 사람을 개구리로 변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꼬마 아가씨, 이제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술 부리는 걸 돕지 못하게 될 거다.” 마르보 아저씨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베키가 물었습니다. 베키는 마르보 아저씨가 사람을 상자 안에 넣고 커다란 은색 톱으로 사람을 반으로 자르는 그런 마술을 보여주었던 하고 바랐습니다.

“얌전히만 있어 준다면, 곧 알려 줄게.” 마르보 아저씨는 커다란 자루에서 작은 검정색 상자를 꺼냈습니다. “자, 애들아, 여기 아저씨의 마술 상자가 있어요.”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베키는 마르보 아저씨의 손에서 상자를 재빠르게 빼앗아 안을 들여다보고 거꾸로 뒤집어 보았습니다.

“내려봐!” 마르보 아저씨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상자가 비었는지 확인한 거예요.” 베키가 말했습니다.

“흠,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라.” 마르보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상자 안을 들여다보고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는지 잘 확인해라.” 아저씨는 베키 앞에 상자를 놓았습니다.

“이미 봤어요.” 베키가 말했습니다.

“흠, 다시 확인해.” 마술사 아저씨가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베키는 뚜껑을 들어 올리고 자세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비었니?”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네”

“확실해?” 마르보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네”

“진짜 확실해?”

“네.” 베키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아저씨의 바보 같은 질문에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확실한거냐?”

“제가 몇 번이나 더 대답을 해야 하는 거죠?” 베키가 말했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마르보 아저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큰 소리로 내쉬었습니다. 아저씨는 침착해 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모두 조용해라.” 아저씨가 의미심장한 눈으로 베키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가 이 마술 상자의 뚜껑을 닫을 거야. 그리고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두!’ 하고 주문을 외울 거야.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듣고 봐야 한다, 애들아.” 마르보 아저씨가 상자 위에서 은색 막대기를 흔들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두! 상자 안에 뭐가 있을까? 아저씨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여기, 내 은지팡이를 들어주렴, 꼬마 아가씨.” 아저씨가 베키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막대기라면서요.” 베키가 말했습니다. 베키는 자신을 “꼬마 아가씨”라고 부르는 것이 영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글쎄, 지금은 그냥 지팡이라고 해.” 마르보 아저씨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냥 들고 조용히 있어.” 마르보 아저씨는 상자 뚜껑을 열고 상자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여기 뭐가 있을까?” 마르보 아저씨는 하얀 토끼 인형을 꺼내 보여주며 숨을 급하게 몰아쉬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니, 작은 토끼야?” 놀란 표정으로 마르보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위 소매에서요.” 베키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마술사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아저씨가 상자 안으로 손 집어넣을 때 소매에서 꺼내는 거 봤어요.” 베키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그런 거 본적 없어.” 마르보 아저씨가 또 소리쳤습니다.

“아니오, 전 봤어요.” 베키가 두 손을 입가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거짓말쟁이예요.”

“들어가 앉아서 암전히 있어.” 마르보 아저씨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다음 마술을 도와주었으면 좋겠구나. 오늘 생일 맞은 친구가 누구지?” 사이먼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가 나를 좀 도와줄래?” 사이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이먼은 풀이 죽은 채 베키를 쳐다보았습니다. “자, 이리 오렴” 마르보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베키가 외쳤습니다. 베키는 둥그렇게 모여 앉은 아이들 맨 앞에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아니, 넌 안 돼.” 베키가 일어서기 전에 마술사 아저씨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네 도움은 충분이 받았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라민타가 별떡 일어서서, 원피스를 끌어내리고 금발의 곱슬머리를 흔들어 털면서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리 오렴, 꼬마 아가씨.” 마르보 아저씨가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아라민타는 예의 바른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마르보 아저씨가 좋아할 만한 그런 아이처럼 말이죠.

아라민타는 마술사 아저씨 옆에 서서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토끼를 좋아해요.” 아라민타가 마르보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토끼들은 착해요.”

“아라민타를 반으로 자를 건가요?” 베키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마르보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뒤로 가서 앉지 그러냐.”

“저는 여기가 좋아요.” 앞으로 나아가면서 베키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마술이야. 아저씨는 마르보의 마법의 초를 가지고 있지.” 마르보 아저씨는 자기 앞에 놓인 탁자 위에 색깔이 있는 초 세 개를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이 꼬마 아가씨에게 초에 불을 붙여달라고 부탁할거야.”

“아이들은 성냥을 갖고 놀면 안 돼요.” 베키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했어요.”

“내가 주의 깊게 지켜볼 거야.” 마르보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아라민타가 불을 낼지도 모른다고요.”

“그렇지 않아.” 마르보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다른 아이들을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나는 이 꼬마 숙녀에게 초에 불을 붙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난 후 마술로 그 촛불들을 끄고 다시 저절로 촛불이 켜지게 만들 거란다.”

정말 바보 같은 속임수라고 베키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베키의 생일날 엄마가 마술을 부린 것처럼 불이 꺼졌다 저절로 다시 켜지는 초를 사서 케이크 위에 꽂아주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처음에는 내가 촛불을 끌 거야.” 마르보 아저씨는 베키가 생각하기에는 그야말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냥 불어서 끄세요. 그게 더 쉬울 텐데요” 베키가 말했습니다.



“내가 요술 막대기를 흔들면.....”

“지팡이예요.” 베키가 고쳐 말했습니다.

“막대기야!” 마르보 아저씨가 베키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요술 막대기를 흔들면서 주문을 외우면.....주문이 뭐라고 했지, 애들아?”

“저 화장실 좀 가도 될까요?” 베키가 물었습니다.

“방해하지 마!” 마르보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 두! 하고 주문을 외우면.....”

“저 정말로 화장실 가고 싶어요.” 베키가 물었습니다.

“그럼, 가거라.” 마르보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골칫덩이가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베키는 허둥지둥 자리를 떠났습니다. 베키는 정말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마르보 아저씨와 아저씨가 하는 바보 같은 마술이 지루했던 것입니다.

베키는 일단 사이먼이 받은 선물들을 살살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물건은 없어 보였습니다. 많은 책과, 펜, 양말, 재킷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베키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소시지빵 두 개, 샌드위치 한 조각, 빵 두 개, 생일 케이크 한 조각을 집어먹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 베키가 돌아왔을 때 아이들 앞에 세 개의 초가 환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꼬마 아가씨.” 마술사 아저씨가 아라민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도 좋아요.”

베키는 마르보 아저씨가 머리 위로 요술 막대기를 흔들면서 주문을 외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두!”

베키는 아라민타가 팔짝팔짝 뛰며 카펫 위의 자기 자리로 돌아가다가 초 하나를 팔꿈치로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초는 흔들거리다가 나머지 두 개의 초 위로 툭하고 쓰러지더니 결국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베키는 촛불이 바닥에 남아있던 선물 포장지에 옮겨 붙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훨씬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빨강고 노란 불꽃들이 혀를 날름거리며 식탁보를 몽땅 집어삼켰고, 식탁보가 타면서 불길의 확 치솟고 탁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모두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 가능한 멀리 도망쳤습니다. 사이먼의 엄마도 방으로 뛰어 들어오더니 이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베키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무질서하고 혼란한 상황을 넋을 잃고 지켜보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서있었습니다. 베키는 조금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항상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침착하고 행동 계획을 정확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키의 눈에 마르보 아저씨는 침착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르보 아저씨는 채 정신이 아닌 채 펄쩍펄쩍 날뛰었습니다.

“오 맵소사!” 마르보 아저씨는 불을 꺼 보려고 커다란 자루를 두들기면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불이야! 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베키는 행동을 개시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지 뒷주머니에서 커다란 녹색 은하계 우주공격용 물총을 꺼냈습니다.

“뒤로 물러서!” 베키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고 소리치면서 우왕좌왕 뛰어다니고, 마르보 아저씨는 불이 붙은 자루를 발로 밟아 불을 꺼 보려고 애쓰고 있을 때, 베키가 물총을 겨누고 쏘았

습니다.

커다란 녹색 은하계 우주 공격용 물총의 물통에서 긴 물줄기가 정확하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베키는 불이 꺼질 때까지 쏘고, 쏘고 또 쏘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베키를 응원했고, 사이먼의 엄마는 입을 벌린 채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 타다 남은 물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술사 마르보 아저씨는 완전히 흠뻑 젖은 채 몹시 화가 난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서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파티였어.” 모두들 집에 갈 준비를 마쳤을 때 베키가 아주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껏 가 본 생일파티 중 최고의 파티야. 완전 환상적이었어!” 베키는 유난히 큰 선물 봉지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오, 고맙구나, 베키야.” 사이먼의 엄마가 말했습니다. “네가 없었으면, 우리 집이 다 타서 없어질 뻔 했구나.”

베키는 마르보 아저씨가 물을 툭툭 흘리며 몹시 화가 난 채 현관문을 조심조심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저씨가 소매 속에 소화기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 정말 유감스럽네요.” 마르보 아저씨가 풀이 죽어 마당을 빠져나가고 있을 때 베키가 소리쳤습니다.

[부록]

영국문화 엿보기

1. 영국에서 아이들 생일파티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2. 차를 위한 시간 - 던 코프만
3. 차 에티켓

출처:(<http://www.bringingupbrits.co.uk/blog/2012/02/23/the-dos-and-donts-of-the-british-childrens-birthday-party/>)

1. 영국에서 아이들 생일파티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나의 두 아이는 모두 3월에 태어나서 우리 가족에게 3월은 파티 준비로 바쁜 달이다! 나는 완벽한 영국식 생일파티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곳에서 아이가 생일파티에 참석할 때 지켜야 하는 파티 에티켓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 만약 이전에 생일파티를 열어본 적이 없는데 생일파티를 열어야 할 경우, 여기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

-팬시 드레스(fancy dress)는 아이들에게 정장을 차려 입히고 타이를 매주는 것이 아니라, 특이한 의상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



-케이크는 파티 도중에 아이스크림과 함께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포장하여 파티 백(party bag)에 넣어 준다.



-파티 백(party bag)은 작은 인형과 과자를 넣어 파티에 초대 받은 손님들에게 나눠준다.

-미니 소시지 롤과 스카치 에그²⁾는 파티 음식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다.



-아이가 파티 도중에 생일 선물을 풀어보게 해서는 안 된다.

-영국에서 ‘호키 포키(Hokey Pokey)³⁾’의 올바른 표현은 ‘호키 코키(Hokey Cokey)’이다.

-다른 부모가 참석했을 경우에는 어른을 위한 음식도 준비한다.(다섯 살 미만의 아이인 경우)

-다른 부모들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파티 동안에 도와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자. 하지만 직접 도움을 요청한다면 기꺼이 도와줄 것이다.

-아이와 함께 파티에 갔다면 돕겠다고 해보자. 파티 주인공 부모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는 않더라도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환영할 것이다.

-집에서 생일 파티를 연다면, 직접 오락을 제공하려고 하지 말고 업체나 사람을 고용한다.

-오락을 위해 최소 100파운드 정도의 비용을 예상하면 된다.



-소프트 플레이(Soft Play)⁴⁾ 같은 곳이 파티를 열기에 효과적이고 쉬운 곳이다.

2) 삶은 달걀을 다진 고기로 싸서 빵가루를 묻힌 뒤 튀겨서 차게 먹는 것

3) 사람들이 둥글게 서서 노래를 부르며 추는 춤. 그 춤곡

4) 한국의 ‘어린이 놀이방’이나 ‘Kids Cafe’와 유사함

-레저센터(바운시 캐슬⁵⁾, 수영장, 롤러스케이팅장)에서 여는 파티는 돈이 더 많이 들기는 하지만 덜 번거롭고, 파티가 끝난 후에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고학년 아이들이 좋아한다.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 체력이 남아돌지 않는 이상 아이가 반 아이들 모두를 초대하게 해서 안 된다.

내 경우에는 실수를 아주 많이 해서 내 아이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고 다른 부모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특히 음식에 있어서만큼은 성공적으로 미국적 특색을 가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훗날 내 아이들이 자신의 생일 파티를 즐거운 기억으로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에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두들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고, 내 딸 안나 그레이스와 막내아들 조나야 생일 축하한다.

5) 속에다 팽팽하게 공기를 채워 그 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기구

출처:(<http://www.timetravel-britain.com/articles/taste/tea.shtml>)

2. 차를 위한 시간 - 던 코프만

차만큼 영국적인 정수를 잘 보여주는 것도 없다. 콘월에 사는 어떤 남자가 차를 재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곳 영국에서는 차를 재배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오래 전에 차를 국민적 음료로 받아들였다. 비록 (나를 포함하여) 젊은 세대들은 이미 어느 정도 미국화되어서 커피를 마시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나, 약간의 출출함을 느끼는 늦은 오후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영국에서 티타임이라고 하면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티타임은 사실상 식사를 의미하고, 영국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스콘에서부터 가벼운 샌드위치와 케이크 몇 조각 혹은 구운 고기를 먹는 정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설명을 하자면, 영국에는 세 가지 종류의 티타임 즉, ‘애프터눈티’, ‘크림티’, ‘하이티’가 있다.

-애프터눈티(Afternoon Tea)

애프터눈티는 전통적으로 오후 네 시에서 다섯 시 사이에 마신다. 그래서 애프터눈티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전통이 1841년에 베드포드의 일곱 번째 공작부인인 안나 마리아 스탠호프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다. 그 당시, 사실상 20세기 전반 몇 십 년까지만 해도 점심은 정오에 먹었지만, 저녁식사는 저녁 여덟 시 혹은 아홉 시가 되어서야 할 수 있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워번에비(Woburn Abbey)에 사는 공작부인은 오후 중반쯤 되면 몸이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을 호소하면서, 차에 버터와 빵 몇 조각을 자신의 개인 응접실인 블루룸(Blue Room)에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어느 정도는 오후에 음식을 먹는 유행이 점점 퍼져 대중화되었고, 영국 전역에서 집에만 있었던 여성들이 가장 좋은 옷을 차려 입고 애프터눈티를 같이 즐기기 위해 서로의 집을 방문했다.

빵 몇 조각에 버터와 함께, 집 주인은 얇은 오이 샌드위치나 빵 껍질을 제거한 연어 샌드위치와 케이크, 패스츄리, 크림을 곁들인 스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빅토리아 스펀지 케이크 등이 나왔다. 폭신하고 촉촉한 빅토리아 스펀지 케이크를 잘 구워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집 요리사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인도나 중국의 많은 가정에서, 차는 은으로 된 차주전자에 담아서 고급스런 자기잔에 따라 대접했다. 에티켓 서적들은 애프터눈티에 관한 에티켓을 전체 장에서 다



루었고, 사교 모임에서 입는 티드레스(tea dress)도 생겨났다. 주목해야 할 것은 애프터눈티는 상류층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는 사교 모임이었다는 것이다.

1864년 에어레이티드 브레드 컴퍼니(Aerated Bread Company)가 중산층 여성들을 위해 찻집을 열었을 때까지는 그 전통이 계속되었다. 곧이어 포트넘 앤 메이슨(Fortnum & Mason), 리츠호텔(The Ritz), 브라운호텔(Brown's Hotel)이 찻집을 열었고, 여성들이 오후에 이런 찻집에

가는 것이 크게 유행했다. 이런 찻집들은 여성들이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보호자 없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1차 세계 대전 중, 여성들은 식량배급 문제로 집에서 하는 애프터눈티 모임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 전통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다시 되살아나지는 않았다. 늦은 오후에 허기를 느낀다면 차 한 잔에 비스킷이면 충분했다. 애프터눈티를 제대로 먹고 싶을 때는 호텔로 갔다. 오늘날은 호텔이나 찻집에서만 전통적인 애프터눈티를 즐길 수 있다. 애프터눈티의 가격을 보면 매우 비싸게 느껴지겠지만, 이런 스타일의 애프터눈티는 상류층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격 역시 그 것을 반영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리츠호텔(The Ritz) : 1인당 34 파운드

-포트넘 앤 메이슨(Fortnum & Mason) : 18.5 ~ 21.5 파운드

-브라운호텔(Brown's Hotel) : 27.5 파운드

차의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차의 목록이 와인 목록만큼이나 길 때도 있지만 각각의 차이점을 잘 모른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영국인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애프터눈티는 상류층의 사람들과 관광객을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영국 가정에서는 애프터눈티는 찬 한 잔과 비스킷 또는 케이크 한 조각이나, 버터 바른 뜨거운 토스트, 혹은 크럼페트 정도의 가벼운 스낵으로 되어있다.

크럼페트(crumpets)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동그랗고 크기는 잉글리쉬머핀 정도이지만 잉글리쉬머핀과는 다르다. 크럼페트는 빵과 같은 부드러운 반죽으로 만들며 위에 전체적으로 작은 구멍들이 나있다. 이 구멍들로 버터가 녹아 들어가 그야말로 환상적인 맛이 난다. 크럼페트는 구워서 먹어야 한다. 크럼페트



를 날로 먹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지만 아마도 생반죽을 먹는 맛 일 것이다. 버터가 잘 녹아든 뜨거운 크럼페트를 맛보는 것은 진정한 즐거움이며, 한 잔의 차와 완벽한 궁합을 이룰 것이다. [편집자주: 덜 부푼 잉글리쉬 머핀을 먹는 것과 비슷한 맛이다.] 사진이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http://derbygirl.blogdrive.com>에서 볼 수 있다. 한 번 먹어보고 싶거나 정말 먹고 싶다면 <http://www1.wolfermans.com>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크림티(Cream Tea)

크림티는 애프터눈 티와 비슷하지만 샌드위치나 케이크 종류가 곁들여지지 않는다.

가장 유명한 크림티는 데번셔 크림티(Devonshire Cream Tea)이다. 그 지방 전설에 따르면 데번셔 크림티는 타비스톡(Tavistock), 더 자세히 말하자면 타비스톡 수도원에서 유래되었다. 이 베네딕트회 수도원은 11세기에 바이킹에게 약탈당했고 후에 다시 재건되었다. 수도사들이 수도원 재건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빵, 고



형 크림, 딸기잼과 같은 열량이 풍부한 음식을 제공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빵은 스콘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크림티가 탄생된 것이다. 서머셋이나 콘월, 서섹스 같은 지역에서는 이 전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지도 모르겠다. 이들 지역에도 크림티가 있으니 말이다.

크림티는 신선하게 구운 과일 스콘에 고품 크림, 버터, 딸기잼과 함께 큰 주전자에 담긴 차가 같이 나온다. 이는 자신의 차는 스스로 따라 마셔라 라는 발상에서

착안된 것이다. 주전자 안에 뭐가 들었든 오늘날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제 차와 함께 먹을 스콘도 스스로 만든다. 스콘에 버터를 바르고, 잼도 바르고, 고품 크림도 발라서 맛을 낸다. 맛은 있지만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다. [편집자주: 무식한 미국인 관광객들처럼(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고품크림을 차에 넣지는 말자.]

여름에는 어디서나 크림티를 팔고 있다고 광고를 하지만, 다른 계절에는 찻집이나 호텔에 크림티를 먹을 수 있는지 문의해 봐야 한다.

-하이티(High Tea)

어떤 호텔들은 하이티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면서 호화로운 진수성찬의 애프터눈티를 하이티라고 설명한다. 하이티는 아주 성대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하이티는 노동자 계급이 먹는 식사다. 하이티는 사실상 저녁식사이다.

차가 영국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는 아주 비싼 사치품이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차

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식단에 포함되는 주요 음료가 되었고, 식사 때마다 차를 마셨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했고, 일꾼들은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그 날의 주된 식사를 했다.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 계급은 점심시간에 집에 올 수가 없게 되어 늦은 오후나 이른 저녁에 주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는 부유한 사람들이 애프터눈티를 즐기던 것과 같은 시간대였다. 이것이 티타임이라고 알려지게 된 것이다. 뜨겁고 포만감을 주는 음식이 같이 나오면 하이티이고, 빵과 얇게 썬 차가운 고기 정도만 제공되면 그냥 티이다. 하이티의 구성은 베이컨, 계란, 고기, 스튜 등 무엇이든 가능하며, 매우 많은 양의 차와 함께 제공된다는 것 이외에 반드시 지켜야하는 사회적 규칙은 없다.



특히 북부지역에서는 심지어 오늘날에도 노동자계급 사람들은 티타임 때 주된 식사를 한다. 내가 자랄 때만 해도 하루의 세끼는 아침(breakfast), 저녁(dinner), 티(tea) 이었고, 티는 항상 산업혁명 이전 식사 시간대인 오후 다섯 시에 먹었다.

반면, 남부지역은 전역에 걸쳐 중산계층에게는 아침(breakfast), 점심(lunch), 저녁(dinner)이 세끼였고, 저녁 식사는 오후 일곱 시 경에 먹었다. 티타임은 아이들을 위한 식사시간이었고 오후 다섯 시에 먹었다. 그렇긴 해도, 오후 다섯 시에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시켜보면, 그 시간에 식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은 거의 없을 것이다. 레스토랑에서는 티(tea)가 아니라 저녁식사(dinner)를 제공한다. 그리고 저녁식사 시간에만 제공한다.

다음번에 영국에 올 때는 티(tea)를 즐겨보길 바란다. 세 가지 모두 알아보았으니, 세 가지 다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

출처:(<http://whatscookingamerica.net/EllenEaston/EtiquetteFauxPas.htm>)

3. 차 에티켓

차 에티켓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Etiquette Faus Pas and Other Misconceptions About Afternoon Tea*(실수를 하지 않는 에티켓-애프터눈 티에 관한 오해들)를 참고한다.

-차잔 들기

뜨거운 차를 몸에 얹지르지 않도록 하면서 손잡이가 없는 차잔을 잡는 방법은 엄지손가락은 여섯 시 위치에, 집게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은 열두 시 위치에 놓고, 새끼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하여 균형을 잡는 것이다.

손잡이가 있는 차잔을 잡을 때는 손가락을 손잡이의 앞뒤방향으로 놓고 새끼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하여 균형을 잡는다.



차잔을 흔들거나 공중에 들어 올려서는 안 된다. 차를 마시지 않을 때는 차잔 받침에 다시 놓아야 한다.

뷔페에서 차를 마실 때는 무릎 위에서 왼손으로 차잔 받침을 들고 오른손으로 차잔을 잡는다. 차를 마시지 않을 때에는 차잔을 차잔 받침에 다시 올려놓고 무릎에 놓는다. 차잔 받침을 차잔과 함께 드는 경우는 스탠딩 연회에 있을 때 뿐이다.

-새끼손가락은 위로 향한다

원래 모든 자기 찻잔은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대략 서기 620년 경에 시작되었다. 이때 만들어진 작은 찻잔들은 손잡이가 없었다. 뜨거운 차를 몸에 엮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손잡이가 달리지 않은 찻잔을 잡는 방법은 엄지손가락은 여섯 시 위치에, 집게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은 열두 시 위치에 놓고, 새끼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하여 균형을 잡는 것이다.

새끼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한다는 것은 꼳꼳하게 공중으로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약간 기울인다는 뜻이다. 이것은 꾸미려는 태도가 아니라 품위를 지키면서 차를 엮지르지 않기 위한 것이다. 찻잔의 손잡이에 손가락을 감아서도 안 되고, 찻잔을 손바닥으로 잡아서도 안 된다.

-차 스푼 사용하기

스푼으로 차를 세계 휘저어서는 안 된다. 차 스푼을 여섯시 위치에 놓고, 열두 시 방향으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부드럽게 천천히 저어준다. 손잡이가 긴 스푼은 다른 접시에 놓거나, 접대하는 사람이나 주인에게 스푼을 치워달라고 부탁한다. 특히, 실제로 차를 마실 때는 잔 속에 스푼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차 대접하기

차는 크림이 아니라 우유와 함께 내놓는다. 크림은 너무 진해서 차 본래의 맛을 가린다. 어떤 사람들은 찻잔에 우유를 먼저 붓기도 하지만, 정확한 양의 우유를 붓기 위해서는 차를 먼저 따른 후 우유를 붓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찻잔에서 티백을 빼서 따로 마련한 받침접시나 찌꺼기 그릇에 놓는다. 티백에 달린 실로 티백 주위를 감거나 티백을 짜서는 안 된다.

레몬을 차와 함께 낼 때는 V자로 자른 것 보다 얇게 썰어서 내는 것이 좋다. 작

은 포크나 레몬용 포크를 같이 제공하거나, 차를 대접하는 사람이 차를 따른 후에 얇게 썬 레몬을 찻잔에 넣어주도록 한다. 레몬의 구연산이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응고시키기 때문에 레몬과 우유를 같이 넣지 않도록 한다.



-차 마시기

차로 입 속 음식물을 행구어서는 안 된다. 소리 내면서 마시지 말고, 한 모금 씩 차를 음미하면서 마시고, 음식을 먹기 전에 삼켜야 한다.